

# 온라인 의학교재인 Medscape를 어떻게 의학교육에 활용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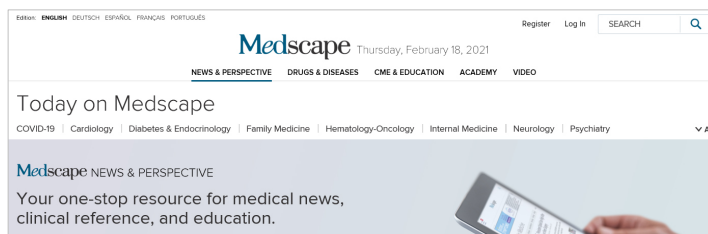
허 선<sup>1,2</sup>

<sup>1</sup>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sup>2</sup>한림대학교 의학교육연구소

## How to Make Good Use of Medscape—Online Medical Textbook

Sun Huh<sup>1,2</sup>

<sup>1</sup>Department of Parasitology,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sup>2</sup>The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교육자료: 웹사이트]

사이트명: Medscape 홈페이지

인터넷 URL: <https://www.medscape.com/>

Medscape은 1995년도부터 미국의 의사들이 주도하여 구축한 의학 교재 데이터베이스이다. 초창기에는 emedicine.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였다. 지금은 의학교과서 뿐 아니라 의학분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모든 내용은 초창기부터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단지 가입을

하여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초창기에 emedicine.com 운영하는 미국 의사로부터 관심 분야 교재 작성을 부탁한다는 메일을 받고 우리나라 의사도 참여하여야 한다고 여겨 아래와 같이 Toxocarasis(개회충증), Enterobiasis(요충증) 두 주제를 정리하여 보냈다(Figure 1). 지금도 이 내용은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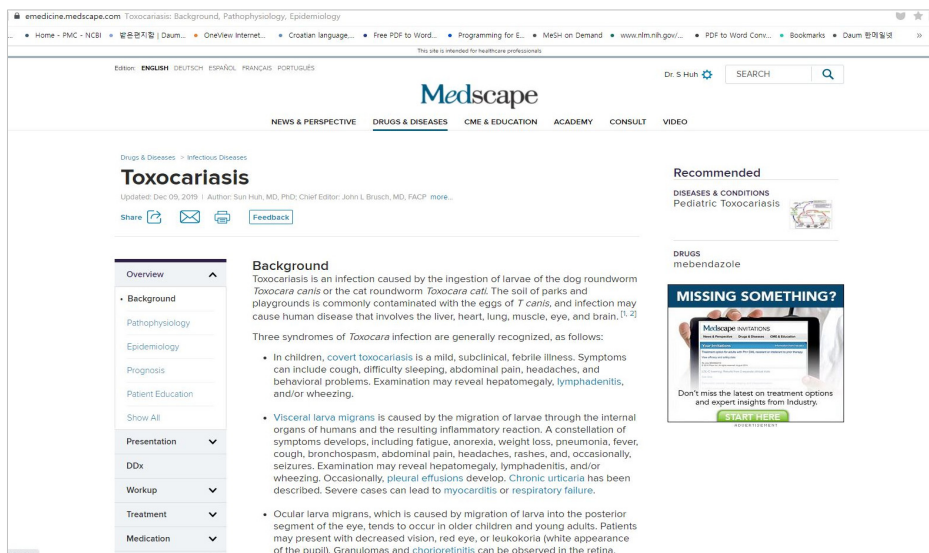


Figure 1. Screenshot of the “Toxocarasis” article in Medscape authored by Sun Huh.

개정하면서 실린다.

Drugs & Diseases > Infectious Diseases > Toxocariasis  
<https://emedicine.medscape.com/article/229855-overview>  
 Updated: Dec 09, 2019  
 Author: Sun Huh, MD, PhD; Chief Editor: John L Bruschi, MD, FACP more...

Drugs & Diseases > Infectious Diseases > Enterobiasis (Pinworm)  
<https://emedicine.medscape.com/article/225652-overview>  
 Updated: Jul 17, 2019  
 Author: Sun Huh, MD, PhD; Chief Editor: Michael Stuart Bronze, MD more...

이 Medscape 저자 가운데 한국 의사는 많지 않다. 이런 교과서 저술은 업적이기는 하지만 크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사회에서 교과서 단행본 저술하는 분은 많지 않고 저술하는 경우도 대개 국문 단행본을 발행하지, 영문 단행본은 공저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단독 저서는 많지 않다. 영문 단독 저서는 대개 Springer-Nature사나 Elsevier사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동안 해외에서 교과서에 공저자로 참여를 부탁하면 대부분 경우 거절하지 않고 참여하였다. Medscape도 한 예이다.

이 교재의 특징은 철저히 임상과정에 따라 자세하게 병태생리부터 예후, 예방까지 모든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Table 1과 같은 제목(heading)과 부제목(subheading) 아래 꼼꼼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의대생은 얼마나 이 Medscape을 학습에 활용할까? 많은 의대생이 교과서를 읽는 것보다 수업시간에 배포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로 공부하며 문제집을 푸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각 교과목마다 국문 교과서가 나와서 그나마 국문 교과서는 읽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영문 교과서를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유행으로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교재가 얼마나 충실한지가 의학교육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온라인 교과서를 읽는 것만으로 교수-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이 불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동영상 강의파일을 올려 놓는 것과 온라인 교과서가 큰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 Medscape와 유사한 의학 교과서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였다. 학회 차원의 교과서나 실습지침서는 대개 유료로 인쇄본으로 판매하면 개인 저자의 교과서도 온라인으로 공개한 내용을 찾기 힘들다.

Medscape은 저술한 내용을 별도의 editor가 심의를 하여 궁금한

**Table 1.** Example of heading and subheading in Medscape

Main heading	Subheading
Background	Pathophysiology
	Epidemiology
	Prognosis
	Patient education
History	Physical
	Causes
	Complications
Differential diagnosis	Diagnostic considerations
	Differential diagnoses
Workup	Laboratory studies
	Imaging studies
	Other tests
	Procedures
	Histologic findings
Treatment	Staging
	Medical care
Medication	Surgical care
	Consultations
	Diet
	Activity
	Prevention
	Further outpatient care
	Further inpatient care
	Inpatient & outpatient medications
	Medication summary
	Specific drugs
Media gallery	
References	

점을 저자와 협의하는 peer review 과정을 거친다. 또한 저자는 대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 세계에서 초빙하여, 비록 미국인 저자가 가장 많으나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있다. 즉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의과대학 학부생에게도 유용하며 평생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으로도 활용한다. 우리나라 의사가 Medscape에서 공부한 것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곳에서 보수교육 확인받는 것은 불가능하나 미국 의사는 가능하다.

저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이 교재를 처리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새 내용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Medscape은 방대한 정보량으로 의대생 학습교재로 충분하고 의사들도 자신의 전공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 지식을 얻을 때 학술지 논문이나 인쇄본 교재 이외 유용한 내용이 많으므로 널리 알려도 충분하다.